

청년 실업

세계 청년 경제활동인구 5명 중 2명은 실업이나 근로빈곤에 처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2억9천만 명의 젊은이가 노동 시장에도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 실업은 현 시점의 생산성에만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청년 본인과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년 실업

2014년에 전 세계 7,400만 명의 청년¹⁾(15-24세 청년의 6%)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고용안정성이 점점 낮아지고, 경제위기와 긴축정책의 여파로 청년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느 때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청년 실업률은 13%로, 2008년 경제위기 전후인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급속히 증가한 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경제위기 전의 11.7%(2007년)에 비해 여전히 높다.

1991년 생산가능인구²⁾ 대비 59%이던 청년 경제활동인구³⁾는 2014년 47.3%로 11.6% 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성인 경제활동참가율⁴⁾은 1% 포인트 감소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청년 고용률⁵⁾은 43.9%에서 41.2%로 2.7% 포인트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의 감소는 교육 참여율 증가와 관련이 있다.

유럽의 3분의 2가 넘는 국가들에서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섰고, 청년 3명 중 1명(35.5%)이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한 청년 10명 중 4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청년 취업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같은 비율의 청년 취업자가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세계 청년 경제활동인구 5명 중 2명(42.6%)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는 있으나 근로빈곤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청년 10명 중 9명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세계 청년 노동시장 참여 현황

2014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각각 28.2%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로 각각 9.9%와 10.6%였다.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유럽연합(이하 EU)의 고용환경은 2012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해 2012년 18%이던 청년 실업률은 2014년 16.6%로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15.1%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3분의 2가 넘는 수의 국가들에서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20%를 웃돈다(그림 1 참조).

경제둔화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경제둔화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노동에 대해 높은 세율과 높은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국가, 근로자 해고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든 국가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인다. 인도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근로 및 보수 관계 규정은 주(州)법과 연방법을 합해 200여개나 된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악명 높은 규정 때문에 근로자의 해고가 매우 어렵다. 남부 유럽에서는 최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어렵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은 지나치게 팽창된 공공 부문, 노동에 대한 높은 세금, 높은 최저임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이 높다.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세 번째 이유는 청년이 가진 기술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구직자들은 넘쳐나지만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후보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는 9개국⁹⁾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기술을 갖춘 초급 직원을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용자가 조사 대상의 43%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당시 조사 대상 중소기업(직원 50명에서 500명 규모)들은 평균 13개의 초급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교육과 직업이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우수한 직업·도제 교육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은 비교적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청년 실업률을 자랑한다. 높은 청년 실업률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교육과 직업 간의 괴리가 뚜렷하지 않다.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대부분은 직업 경험을 갖지 못한 채 졸업한다. 북아프리카에서는 기업이 대학 졸업자의 기술 부족을 불평하는 데도 대학은 학생들의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 5년간 미국과 영국 같은 유연한 경제에서 청년 실업이 과거 불황 때보다 더 증가한 이유는 교육시장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일치하지 않고, 직업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 중 하나인 영국에는 백만 명 가량의 니트족이 있다. 독일 청년의 두 배 가까운 영국 청년이 실업자인데, 영국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오래된 부정적 편견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의 실업률은 대학 졸업자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한다.

사회 진출 초기에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향후 20년간 생애소득의 20%에 달하는 임금 손실을 겪고 미래에 실직할 확률도 높다.

청년 실업의 여파

청년 실업은 현 시점의 생산성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청년 본인과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통계에 기반을 둔 연구에 따르면, 사회 진출 초기에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향후 20년간 생애소득의 20%에 달하는 임금 손실을 겪고 미래에 실직할 확률도 높다.

청년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다. 관대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고소득 국가에서 청년 실업의 증가는 납세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긴다. 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일자리(하향취업)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EU가 청년 실업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1,530억달러(EU GDP의 1.2%)에 달했다.

한편 드라기(Draghi)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유럽사회의 통합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3월 초 유럽의 이자율을 0%로 내리는 결정에 앞서 유럽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청년으로부터 기성세대로 부(富)를 재분배해 청년 세대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노동시장이 '내부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회에 첫발을 딛는 '외부자'인 청년에게 불리한 고용 환경을 조성해 세대 간 불평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당장의 높은 청년 실업과 하향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보다 장기적으로 청년의 자질 향상과 고용 장애 제거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실행하는 것이다.

OECD 청년 노동시장 정책

2013년 5월 OECD 장관회의는 'OECD청년실행계획(OECD Action Plan for Youth)'을 승인·발표했다. 이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당장의 높은 청년 실업과 하향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보다 장기적으로 청년의 자질 향상과 고용 장애 제거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실행하는 것이다.

| OECD 청년실행계획 개요

- 당면한 청년 실업 위기 해소
 - 총수요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엄격한 상호 책임 원칙하에 실업 청년에게 소득보조금을 제공한다.
 - 비용-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유지 또는 확대한다.
 - 비숙련 청년의 고용에 대한 수요 측면 장애를 해결한다.
 - 사용자가 양질의 도제/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확대하도록 격려한다.
- 장기적 청년 고용 전망 강화
 - 청년이 직업 세계에 준비하도록 교육시스템을 강화한다.
 - 직업교육과 훈련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
 - 청년의 학업에서 직업으로의 전환 과정을 지원한다.
 - 취업을 도모하고 사회적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 및 제도를 개선한다.

출처

-
-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OECD June 2013
 - “European job market is rigged against younger workers, says Draghi,” the guardian, 11 March 2016
 - “Generation jobless,” The Economist, Apr 27th 2013
 -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5: Scaling up investments in decent jobs for youth/International Labour Office – Geneva:ILO, 2015

-
- 1) 나라마다 청년에 대한 연령 정의가 다르다. ILO는 일반적으로 15-24세를 사용하지만, 고등 교육을 추구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연기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일부 통계에서는 청년을 15-29세로 정의한다. UN은 청년을 14-28세 연령 인구로 정의하고 있다.
 - 2) 일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생산가능인구, 또는 노동가능인구로 분류하는데,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그 범주에 넣고 있다.
 - 3) 생산가능인구 중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며, 그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부른다.
 - 4)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생산가능인구
 - 5)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
 - 6) 실업자를 ‘실직 상태로 일할 수 있으며 구직 활동 중인 사람’에서 ‘실직 상태로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정의를 완화하는 것.
 - 7)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1990년대 경제상황이 나빴던 영국 등 유럽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일본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니트족도 증가했다. 니트족은 늘어날수록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8)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낮은 남아시아 같은 국가의 여성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 수는 줄어든 것이다. 남아시아 여성은 세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한다.
 - 9) 미국, 브라질, 영국, 독일, 인도, 멕시코,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